

Session 3 Jesus' Pre-existence and Genealogy (Jn. 1; Mt. 1; Lk. 3)

제 3 강 이전부터 존재하신 예수님, 그리고 계보 (요 1 장; 마 1 장; 눅 3 장)

I. JESUS' PRE-INCARNATE EXISTENCE (JN. 1:1-5)

성육신 이전부터 존재하신 예수님 (선재성) (요 1:1-5)

- A. John began his gospel with the mystery of the transcendent God fully identifying with broken humanity by declaring Jesus' preexistence as the uncreated God (Jn. 1:1-3) and His incarnation in being fully human (Jn. 1:14). Why? Jesus desires humans to be His eternal companion (Jn. 17:24).

요한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이전부터 존재하신 예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며 (요 1:1-3) 완전한 인간으로 성육신 하셨음을 선포함으로 (요 1:14), 하나님께서 자신을 깨어진 인간과 동일시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 언급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왜 이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서는 인간들을 자신의 영원한 동반자로 삼기 원하셨기 때문이다 (요 17:24).

- B. Jesus is the Word—He existed before time, together with God, and is the source of creation (1:1-3).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그분은 태초 전에 존재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창조의 근원이시다 (1:1-3).

¹*"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²H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³All things were made through Him, and without Him nothing was made that was made."* (Jn. 1:1-3)

¹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²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³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 1:1-3)

1. Jesus is the Word of God (Rev. 19:13). By seeing what Jesus *said and did* in the Gospels, we can gain understanding into various difficult passages in the Word. The values and truths about God as seen in the Word were experienced and expressed through Jesus' behavior.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다 (계 19:13).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성경 말씀에 있는 다양한 어려운 구절들을 이해해나갈 수 있다.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가치와 진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 경험되었고 표현되었다.

2. God created through the Word (1:3). Jesus is identified as the Creator of Genesis 1 who sustains the universe by His word (Jn. 1:3; Eph. 3:9; Col. 1:16-17; Heb. 1:2-3; Jas 1:18).

하나님께서서는 말씀을 통해 창조하셨다 (1:3).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붙드시는 창세기 1 장의 하나님이시다 (요 1:3; 엡 3:9; 골 1:16-17; 히 1:2-3; 약 1:18).

- C. Jesus is the source of life for the redeemed (Jn. 1:4-5). We receive life from the Word.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요 1:4-5). 우리는 말씀을 통해 생명을 받는다.

⁴*In Him was life [zoe], and the life [zoe] was the light of men. ⁵And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and the darkness did not comprehend it [overpower it]."* (Jn. 1:4-5)

⁴ 그 안에 생명[조에]이 있었으니 이 생명[조에]은 사람들의 빛이라 ⁵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표준새번역: 이기지 못하였다] (요 1:4-5)

1. There are two Greek words for life—*psuche* speaks of natural life that humans and animals have; *zoe* speaks of supernatural life that only comes through relationship with the Spirit.

이 생명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헬라어가 쓰인다. **프슈케**(*psuche*)는 인간이나 동물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생명을 말하고, **조에**(*zoe*)는 성령님과 교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초자연적인 생명을 말한다.

2. Darkness cannot overpower spiritual light (1:5). The way to decrease darkness in our lives is to focus on increasing the amount of light we enjoy. We will not overcome the darkness of immorality, bitterness, or pride by focusing on it, but by being preoccupied with gaining more of the “light of the superior pleasure of the revelation” of God.

어둠은 영적인 빛을 이길 수 없다 (1:5). 우리 삶에서 어둠을 줄여나가는 방법은 빛을 증가시키며 즐거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우리는 음행이나 쓴 마음, 교만 등을 이기기 위해 그것들에 집중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빛의 더 우월한 즐거움을” 더 얻어나가는 데에 사로잡힐 때에 이것들을 이길 수 있다.

⁵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and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 (Jn. 1:5, RSV)*

⁵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표준새번역: 이기지 못하였다) (요 1:5)

II. INTRODUCTION OF JOHN'S GOSPEL (JN 1:6-18)

요한 복음의 도입 부분 (요 1:6-18)

- A. John the Baptist's life purpose was to be a faithful witness to Jesus (1:6-8)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충성되게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다 (1:6-8).

⁶ *“There was a man sent from God, whose name was John. ⁷This man came for a witness, to bear witness of the Light, that all through him might believe. (Jn. 1:6-7)*

⁶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⁷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요 1:6-7)

- B. The incarnation and the response of people to Jesus (1:9-11). All people have a general revelation of God—the dual witness of creation and conscience (Rom. 1:19-21). If they submit to this general revelation of God, then the Spirit will reveal the specific revelation of God—which is Jesus.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1:9-11).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일반 계시 (general revelation)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창조와 양심의 두 가지 증거를 통해 이루어진다 (롬 1:19-21). 만일 이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일반 계시를 받아들일 때, 성령님께서서는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계시 (specific revelation), 즉 예수님을 밝혀주실 것이다.

⁹ *That was the true Light which gives light to every man coming into the world. ¹⁰He was in the world, and the world was made through Him, and the world did not know Him. ¹¹He came to His own, and His own did not receive Him. (Jn. 1:9-11)*

⁹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¹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¹¹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 1:9-11)

- C. The privilege of those who accept Jesus, the Word (1:12-13): The power, authority, and privileges that Jesus walked in as a Man are available to His people (Rom. 8:16-17; 1 Jn. 3:1-2).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특권 (1:12-13):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과 권세, 특권은 그분의 백성들이 모두 누릴 수 있는 부분이다 (롬 8:16-17; 요일 3:1-2).

¹² But as many as received Him, to them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to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 ¹³ who were born, not of blood, nor of the will of the flesh, nor of the will of man, but of God. (Jn. 1:12-13)

¹²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¹³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 1:12-13)

1. **Not of blood:** Salvation does not come by natural birth—boasting in ancestry is futile.

혈통으로나: 구원은 출생 신분과 관계없다. 자신의 조상을 자랑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2. **Nor of the will of flesh:** Salvation cannot be forced on others. We cannot pressure or convince people to be saved by natural logic. It takes a revelation of God to each individual's heart.

육정으로나 (한글 KJV: 육신의 뜻으로나): 구원은 강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들을 이성적으로 설득이나 확신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할 수 없다. 구원은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알려진 바 되는 깨달음, 계시가 필요하다.

3. **But of God:** Salvation is a supernatural miracle that comes by revelation.

하나님께서로부터: 구원은 계시, 깨달음을 통한 초자연적인 기적이다.

- D. The Word was given expression through Jesus' physical body (1:14). God's glory is defined as miracles and character (2:11). God's power and love were expressed in a human form by Jesus.

말씀은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 우리 앞에 형상화되었다 (1:14). 하나님의 영광은 기적과 성품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진 바 된다 (2:11).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인간의 모습 안에 표현되었다.

¹⁴ "And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and we beheld His glory, the glory as of the only begotten of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Jn. 1:14)

¹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4)

- E. We receive grace and truth through the Word (1:16-17).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은혜와 진리를 받는다 (1:16-17).

¹⁶ And of His fullness we have all received, and grace for grace. ¹⁷ For the law was given through Moses, but grace and truth came through Jesus Christ. ¹⁸ No one has seen God at any time. The only begotten Son, who is in the bosom of the Father, He has declared Him." (Jn. 1:16-18)

¹⁶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¹⁷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¹⁸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 1:16-18)

1. We received of His fullness. God does not give to us out of His weakness, but His fullness (Eph. 3:19). Grace speaks of God's power and love—it is lavished upon us (Eph. 1:8).

우리는 그분의 충만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연약한 것을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엡 3:19).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말하며, 이는 우리 위에 넘치는 부분이다 (엡 1:8).

2. The truth of what we have become in Christ was not made known by Moses' law. Now God's purposes for us and His love and the power available to us have been revealed. They are no longer a hidden mystery as they were while under Moses (Col. 1:26-27; 1 Cor. 2:7-9).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가 되었는지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된 그분의 사랑과 능력이 어떤 것인지 나타난 바 되었다. 이 부분들은 모세의 율법 아래 있을 때처럼 더 이상 우리에게 숨겨진 비밀이 아니다 (골 1:26-27; 고전 2:7-9).

3. No man has seen God at any time. Jesus has revealed and explained God to the human race.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예수님께서서는 인류에게 하나님을 알리셨고, 설명해주셨다.

4. Jesus lived in the bosom of the Father and continues to live there (Jn. 14:3b).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계셨고, 지금도 그곳에 계신다 (요 14:3b).

III. JESUS' HUMAN ANCESTRY THROUGH JOSEPH (MT 1:1-17)

요셉까지 이르는 예수님의 가계 (마 1:1-17)

- A. Matthew opened by presenting Jesus as the *son of David* (king of Israel) and the *son of Abraham* (savior of the world). This referred to two Old Testament covenants—the nations would be blessed through Abraham (Gen. 12:7) and the kingdom would come through David (2 Sam. 7:12-16).

마태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스라엘의 왕)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온 세계의 구원자)인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구약의 2 개의 언약을 상기시켜준다. 온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되며 (창 12:7), 다윗의 자손을 통해 나라를 세우심의 언약 (삼하 7:12-16).

¹“The book of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Mt. 1:1)

¹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 1:1)

1. The Messiah had to be traced back to David's royal family line to be accepted by Israel as heir to the throne of David. Both Mary and Joseph were in David's family line.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그가 다윗의 보좌를 이어야 하기에 다윗의 왕가의 계보 안에 있어야 한다. 마리아와 요셉은 모두 다윗의 가계 안에 있던 자들이었다.

2. There are over fifty genealogies in the Old Testament. Today, most Jewish people do not have a historical record of their ancestry. Thus, none can prove to be in David's royal line.

구약에는 50 대 이상의 가계가 나온다. 오늘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신의 조상이 누구인지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자신이 다윗의 왕가에 있는지 증명할 수 없다.

- B. Matthew's genealogy traces the generations through Joseph's family line starting with Abraham through David down to Joseph and Jesus. Luke's genealogy is the reverse—it starts with Jesus and traces the generations through Mary back to Adam. One begins with Jesus; the other ends with Him.

마태복음에 나와있는 계보는 요셉의 가계를 따라가며 아브라함에서 다윗, 그리고 요셉과 예수님까지 찾아 내려온다. 누가복음의 계보는 반대로 진행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마리아의 가계를 따라가며 아담까지 올라간다. 복음서 하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다른 하나는 그분에서 끝난다.

- C. Why a genealogy? To establish Jesus was a son of David and a son of Abraham through Joseph and Mary, so He had the *right* to rule the throne of David. God revealed Himself in Jesus' genealogy. He is the only person who "hand-picked" His genealogy—it is significant who He picked.

여기서 왜 계보가 중요한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자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확인함으로써, 그분이 다윗의 보좌에서 다스릴 권한이 있음을 확인해주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분은 이 계보를 직접 고르셨고, 그분이 누구를 고르셨는지는 중요한 부분이다.

- D. Jesus identified with all mankind through the genealogy that He picked. He wanted all types of people in His family line—the message is that Jesus identified with human failure and weakness. He is approachable by all, unrelated to race, age, sex, social status, education, spirituality, etc.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르신 계보를 통해, 자신을 모든 인류와 동일시하셨다. 그분은 자신의 계보 안에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셨다. 여기서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을 끌어안으셨다는 것이다. 그분은 모든 이들이 다가갈 수 있는 분이요, 인종이나 나이, 성별이나 사회적 지위, 교육이나 영성과 관계 없이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분이요.

²Abraham begot Isaac, Isaac begot Jacob...³Judah begot Perez and Zerah by Tamar...⁵Salmon begot Boaz by Rahab, Boaz begot Obed by Ruth, Obed begot Jesse, ⁶ and Jesse begot David the king. David the king begot Solomon by her who had been the wife of Uriah [Bathsheba]...¹⁰Hezekiah begot Manasseh,...¹¹Josiah begot Jeconiah...¹²And after they were brought to Babylon...Shealtiel begot Zerubbabel. ¹³ Zerubbabel begot Abiud...¹⁵Matthan begot Jacob.

¹⁶And Jacob begot Joseph the husband of Mary, of whom was born Jesus who is called Christ. (Mt. 1:2-16)

²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 ³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⁵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 ⁶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 ¹⁰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 ¹¹...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¹²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¹³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¹⁵... 맛단은 야곱을 낳고 ¹⁶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 1:2-16)

1. **Four women:** It was highly unusual to include women in a genealogy. Three of the women mentioned were involved in immorality— *Tamar* (Gen. 38:11-30), *Rahab* (Josh. 2:6; 6:25), and *Bathsheba* (2 Sam. 11). *Ruth* the Moabitess was a foreigner. Moabites were enemies of Israel and forbidden even to enter God's house.

네 명의 여성: 계보에 여성이 포함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 중 3명은 음행과 연관된 사람들이었다, 다말 (창 38:11-30), 라합 (수 2:6; 6:25), 밧세바 (삼하 11 장). 룩은 모압인으로서 이방인이었다. 모압인들은 이스라엘의 적이었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었다.

2. **Joseph the husband of Mary:** Scripture never refers to Joseph as the father of Jesus, but only as the husband of Mary. The royal line legally passed through the father—Jesus was Joseph's legal son by adoption. Through Joseph and Solomon, Jesus was legally heir to David's throne.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 성경은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로 절대로 직접 언급하지 않으며, 마리아의 남편으로만 언급하고 있다. 왕가의 후손은 법적으로 아버지를 통해 이어졌다. 예수님은 입양을 통한 요셉의 법적인 아들이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요셉과 솔로몬을 통해 법적으로 다윗의 보좌를 이을 수 있었다.

- E. Three periods of ancestors (v. 17): This is not a complete list. The editing of the genealogy to identify fourteen generations in each of three periods was intentional.

조상들의 3 개 기간 (17 절): 이는 전체 계보를 다 포함하지 않는다. 3 개 기간 각각이 14 세대가 되도록 한 것은 의도적으로 편집된 것이었다.

¹⁷*So all the generations from Abraham to David are fourteen generations, from David until the captivity in Babylon are fourteen generations, and from the captivity in Babylon until the Christ are fourteen generations.* (Mt. 1:17)

¹⁷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더라 (마 1:17)

1. The first period from Abraham to David—the period of the patriarchs (Abraham, Isaac, Jacob, and Joseph) and the judges (Deborah, Barak, Samson, Jephthah). This was the period of the birth and establishing of Israel as a nation.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첫째 시기 – 족장들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사들 (드보라, 바락, 삼손, 셉나).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나라로써 태어나고 세워지는 시기였다.

2. The second period from David to Jeconiah—the period of the kings was through the time of Jeconiah. This period had a few good kings like Jehoshaphat, Hezekiah, and Josiah. However, sinful kings dominate this period, like Rehoboam, Ahaz, and Manasseh, leading to apostasy and ultimately to the destruction of Israel and the captivity in Babylon.

다윗부터 여고냐까지 둘째 시기 – 왕들의 시대는 여고냐 때까지였다. 이 시기에는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 요시야와 같은 몇몇의 좋은 왕들이 존재했으나, 악한 왕, 즉 르호보암, 아하스, 므낫세와 같은 왕들이 이스라엘을 배교로 이끌었다. 이로 인해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

3. The third period from the Babylon captivity until Jesus' birth—600 years of names we don't know. It was a hard time in which Israel faced many enemies and much silence.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님의 출생까지 셋째 시기 –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으로 이어지는 600년.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많은 적들을 대면하며 많은 하나님의 침묵이 있던 기간이었다.

- F. Jesus' human ancestry through Mary (Lk. 3:23-28): Luke traced the genealogy back to Adam to emphasize Jesus' love for all in the human family. Priests began their ministry at age 30 (Num 4:3).

마리아까지 예수님의 인간 조상들 (눅 3:23-28): 누가는 아담까지의 계보를 찾아 올라가면서 모든 인간 구성원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한다. 제사장들은 30 살이 되었을 때 사역을 시작했다 (민 4:3).

²³“Now Jesus Himself began His ministry at about thirty years of age, being (as was supposed) the son of Joseph, the son of Heli, ²⁴the son of Matthat...the son of Rhesa, the son of Zerubbabel, the son of Shealtiel...³¹the son of Mattathah, the son of Nathan, the son of David, ³²the son of Jesse, the son of Obed, the son of Boaz...³⁴the son of Jacob, the son of Isaac, the son of Abraham, the son of Terah...³⁶the son of Shem, the son of Noah...³⁷the son of Enoch, the son of Jared...³⁸the son of Seth, the son of Adam, the son of God.” (Lk. 3:23-38)

²³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삼십 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²⁴ 그 위는 맛닷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 ³¹ ... 그 위는 맛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³² 그 위는 이새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³⁴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³⁶ ...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 ³⁷ ...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 ³⁸ ...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눅 3:23-38)

1. Luke presents the genealogy of Jesus in reverse order from Matthew's—giving 77 names. Both genealogies mention Joseph as the father of Jesus, and include Abraham, David, and Zerubbabel (Mt. 1:1, 12; Lk. 3:27).

누가는 총 77 명의 이름을 언급하며 마태와는 반대 방향으로 예수님의 계보를 보여준다. 두 계보는 모두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을 언급하며, 아브라함과 다윗, 스룹바벨을 포함하고 있다 (마 1:1, 12; 눅 3:27).

2. **Heli**: He was Mary's father (v. 23) and Joseph's father-in-law. Joseph's physical father was Jacob (Mt. 1:16). It is suggested by many that Mary had no brothers and thus Joseph was adopted by Mary's father after their marriage.

헬리: 그는 마리아의 아버지였으며 (23 절), 요셉의 장인이었다. 요셉의 육신의 아버지는 야곱이었다 (마 1:16). 마리아에게는 형제가 없었기에, 요셉은 결혼 후에 마리아의 아버지에게 입양되었다는 많은 의견이 있다.

3. **Nathan**: Mary's family line is traced, not through David's son Solomon, but through Nathan, David's third son with Bathsheba. Nathan's family line will be blessed in the end times (Zech. 12:12). Messiah's ancestry is traced through Nathan, bypassing the line of the kings of Judah.

나단: 마리아의 가계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나단, 즉 다윗과 밧세바 사이의 셋째 아들인 나단을 짚고 간다. 나단의 가계는 마지막 때에 축복을 받는다 (슌 12:12). 여기서 메시아의 조상의 계보는 나단을 거쳐 올라가며, 유다의 왕들의 계보를 거치지 않는다.

4. **Adam:** He is described as the son of God (3:38) to compare and contrast with Jesus as the son of God (3:22; 4:3). This genealogy comes right *after* Jesus' baptism and anointing by the Spirit as Messiah (Lk 3:21-22) and right *before* Jesus was tempted in the wilderness (Lk. 4:1-13) in a way that parallels Adam's temptation and sin in the garden of Eden (Gen. 3:1-7).

아담: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언급되고 있으며 (3:38),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비교되며 대조되고 있다 (3:22; 4:3). 이 가계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메시아로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나오고 있으며 (눅 3:21-22),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기 바로 **이전에** 나오고 있어서 (눅 4:1-13)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미혹되고 죄를 짓는 장면과 대조되고 있다 (창 3:1-7).

5. By obedience, Jesus stood in the human family as the last Adam restoring sonship to God.

예수님께서서는 순종하심으로 인간 계보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서심으로 인류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셨다.